

2011년 1분기 경영실적

2011년 5월

CONTENTS

1. 2011년 1분기 경영실적
2. 사업부문별 실적 및 전망
3. Appendix

본 자료의 2011년 1분기 경영실적은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
예상실적으로 추후 확정실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,
향후전망은 당사의 사업전망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영업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.
본 자료의 모든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에 의해 연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
실적발표 기준 안내

- 2011년 1Q부터 상장기업 대상 의무 도입 사항인 국제회계기준(IFRS)에 따라 작성된 경영실적 공고

항 목	설 명
연결재무제표 공시 및 연결 범위 변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작성/공시 • 종속회사 규모에 관계 없이 지분율 50% 초과이면 연결범위 포함
영업외손익의 계정 재분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금융손익과 관계기업투자손익(舊지분법평가손익)을 제외한 기존의 영업외손익 계정은 영업이익에 반영
별도 재무제표의 관계기업투자손익 제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존 K-GAAP에서는 관계기업투자손익을 반영 하였으나 IFRS 기준에서는 별도 재무제표에는 이를 제외하고 연결 재무제표에만 반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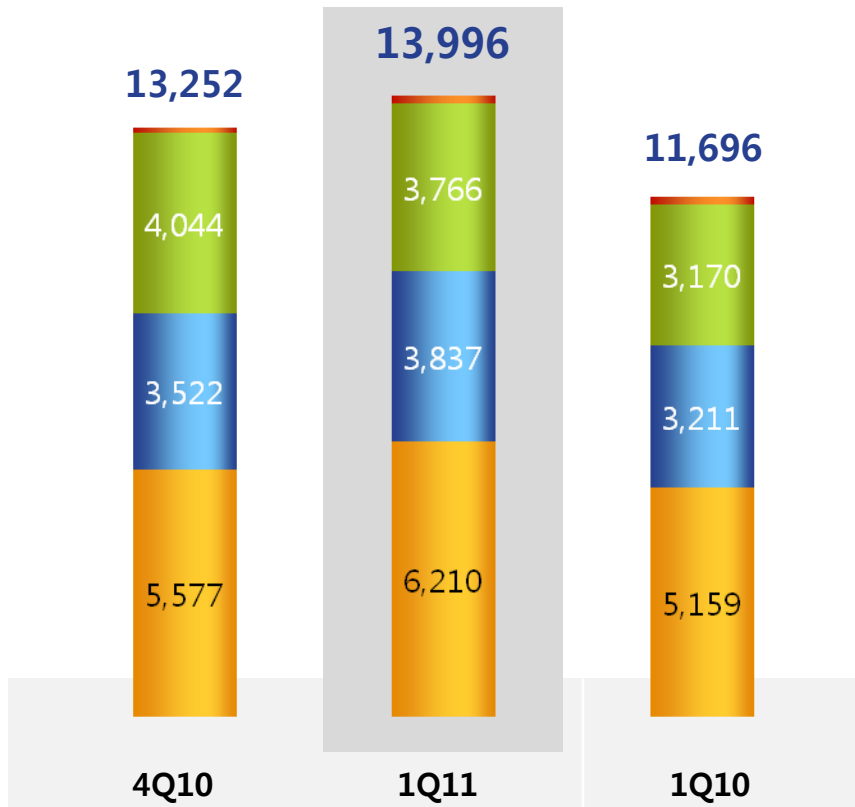
1 2011년 1분기 경영실적

2011년 1분기 경영실적

매출액

단위: 억원

■ 케미칼 ■ 전자재료 ■ 패션 ■ 기타



손익

단위: 억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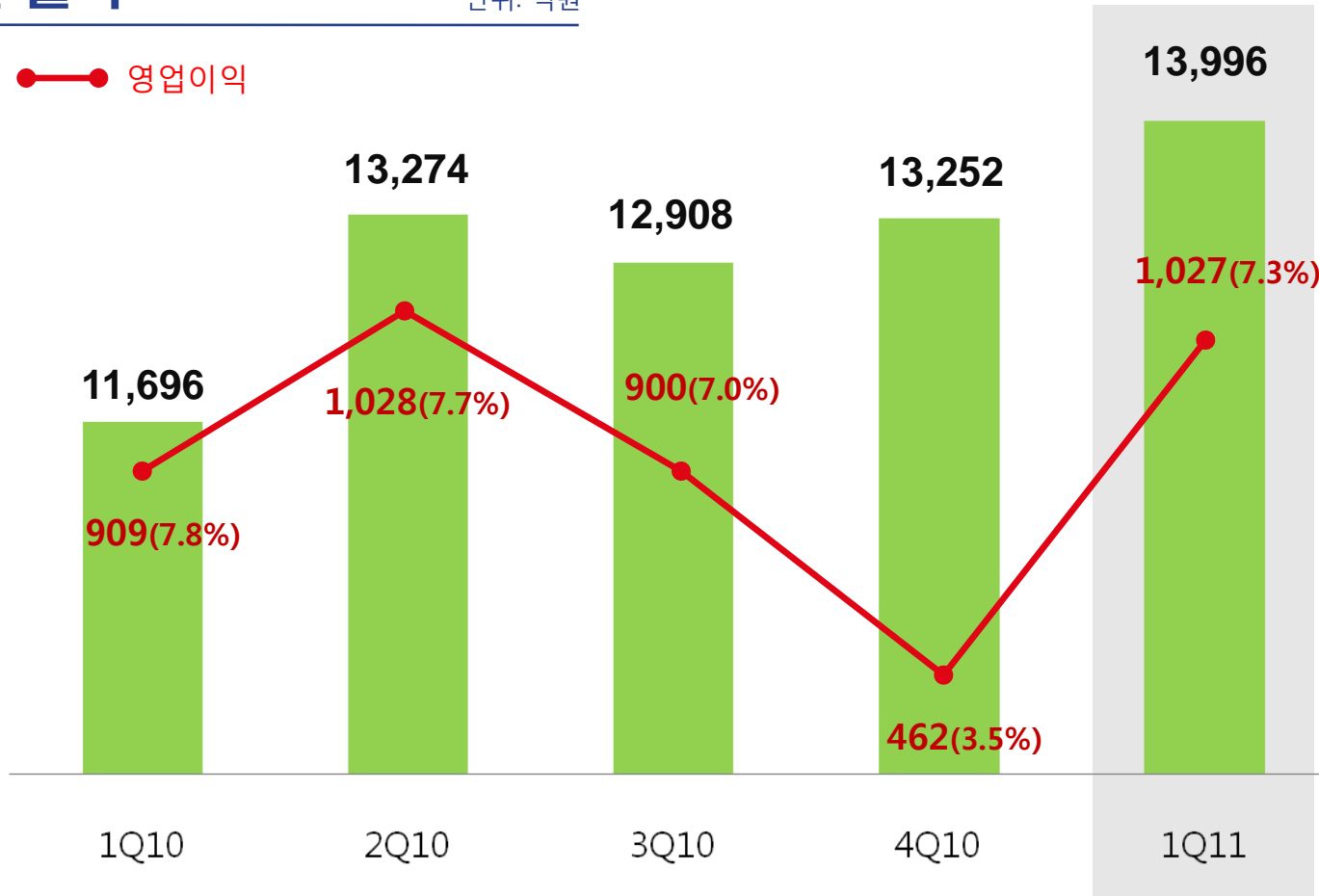
	4Q 10	QoQ	1Q 11	YoY	1Q 10
영업이익	462	↑ 122%	1,027	↑ 13%	909
세전이익	612	↑ 79 %	1,096	↑ 20%	914
순이익	329	↑ 178 %	916	↑ 16%	790

분기별 경영실적 비교

분기별 실적

단위: 억원

■ 매출액 ● 영업이익



재무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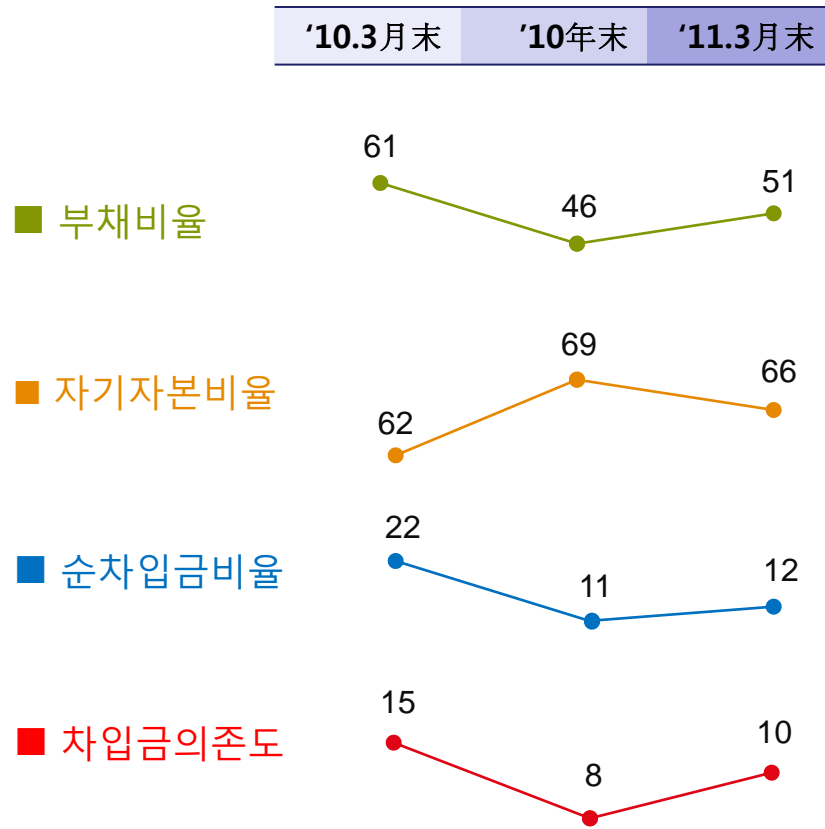
재무상태표

단위: 억원

	'11.3月末	'10年末	증감
자 산	43,526	40,322	3,204
유동자산	14,250	12,275	1,975
현 금	883	334	549
매출채권	6,072	5,184	888
재고자산	6,583	6,126	457
비유동자산	29,276	28,047	1,229
부 채	14,679	12,657	2,022
총차입금	4,293	3,272	1,021
(순차입금)	(3,442)	(2,995)	(447)
자 본	28,847	27,665	1,182

주요지표

단위: 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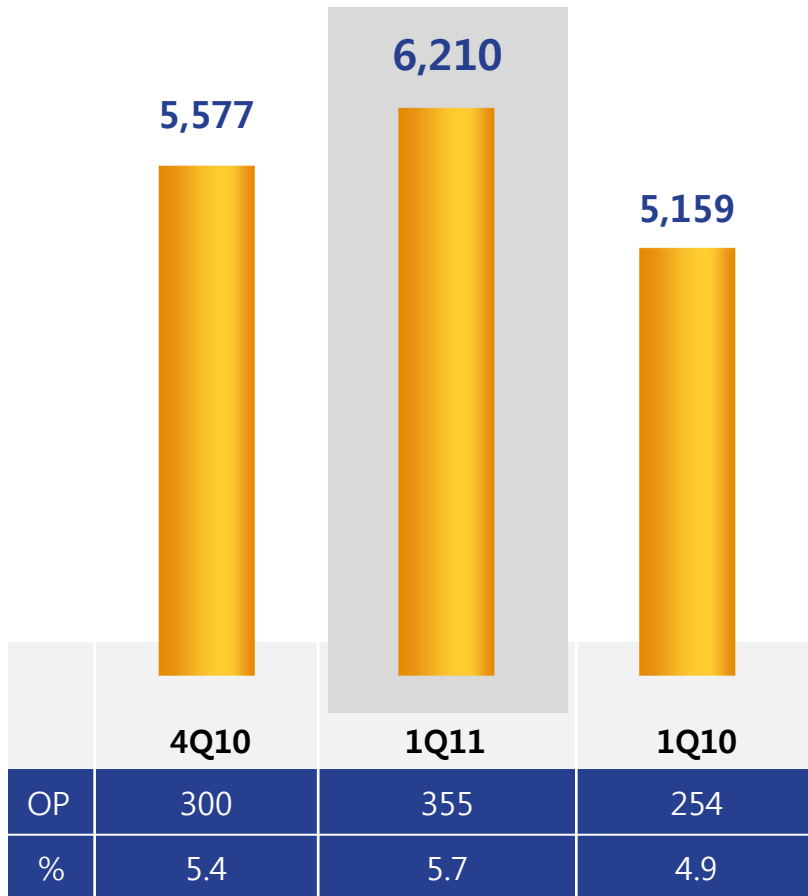
2 사업부문별 실적 및 전망



케미칼

경영실적

단위: 억원



실적분석 및 전망

원료가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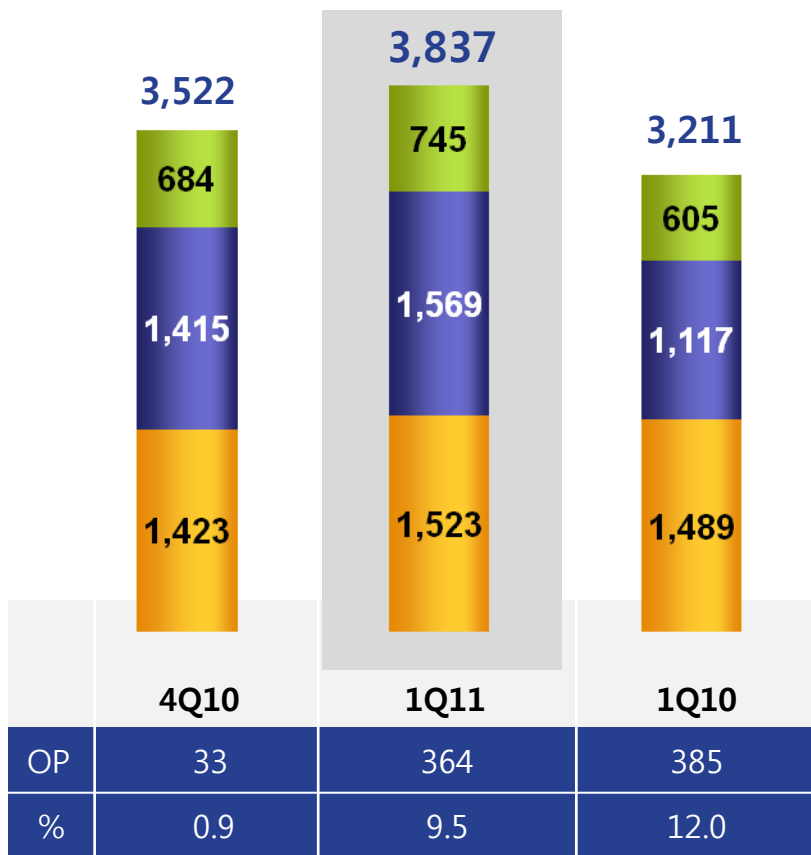
(\$/bbl, ton)	1Q11	4Q10	1Q10
유 가	94	85	78
S M	1,400	1,281	1,277
A N	2,503	2,167	2,151
B D	2,404	1,974	1,854
ABS(시장)	2,268	2,100	1,822

- 전방산업의 침체에도 불구하고, 원료가 상승 및 3월 수요 회복으로 매출 증가
- 적극적인 판가인상 추진 및 원가절감 노력으로 전년비, 전분기비 수익성 개선
- 2분기부터 IT경기의 점진적인 상승 전망으로 물량 확대 및 제품 Mix 개선 기대

경영실적

단위: 억원

■ 편광필름 ■ 디스플레이 ■ 반도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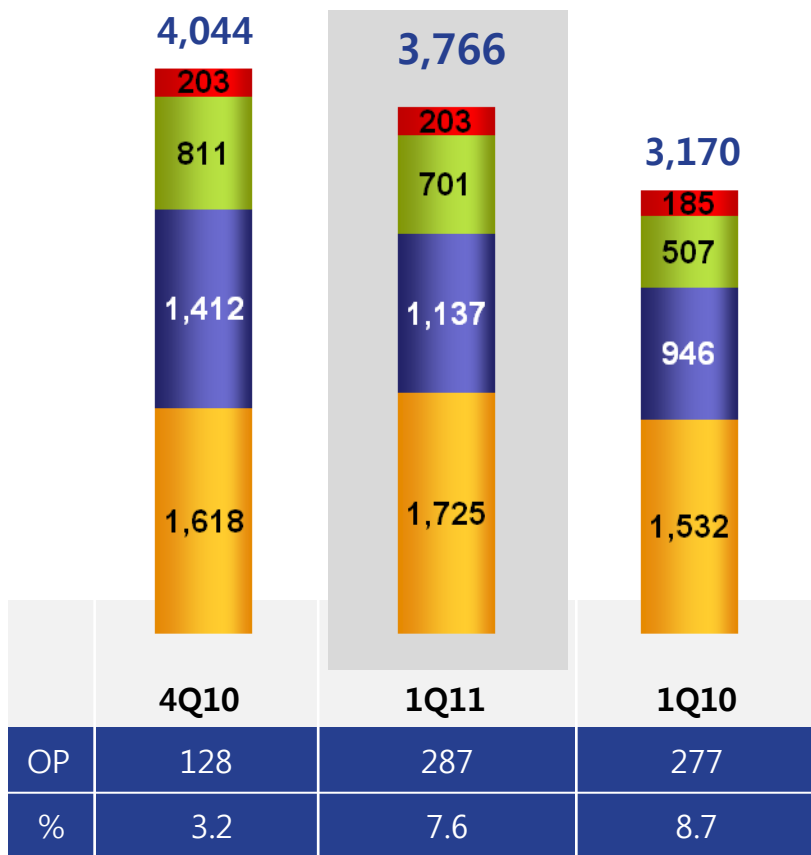
실적분석 및 전망

- IT경기의 위축에도 불구하고, 지속적인 차별화 제품 공급에 따른 시장점유율 확대로 전분기비, 전년동기비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
 - 고객사의 미세패턴화 가속화에 따른 반도체 前공정소재 매출 증가
 - 디스플레이: 필름소재 매출은 부진하였으나 CR, Paste 등 공정소재의 M/S 확대로, 전분기비 11%, 전년비 40% 매출 증가
 - 편광필름: 2월부터 46, 55" 등 TV용 대형 제품의 시장진입으로 외형성장 본격화
- 고객사의 패널 재고소진, 中노동절 특수 등에 따른 업황회복으로 본격적인 수요 회복 예상

경영실적

단위: 억원

■ 캐주얼 ■ 남성복 ■ 여성복 등 ■ 기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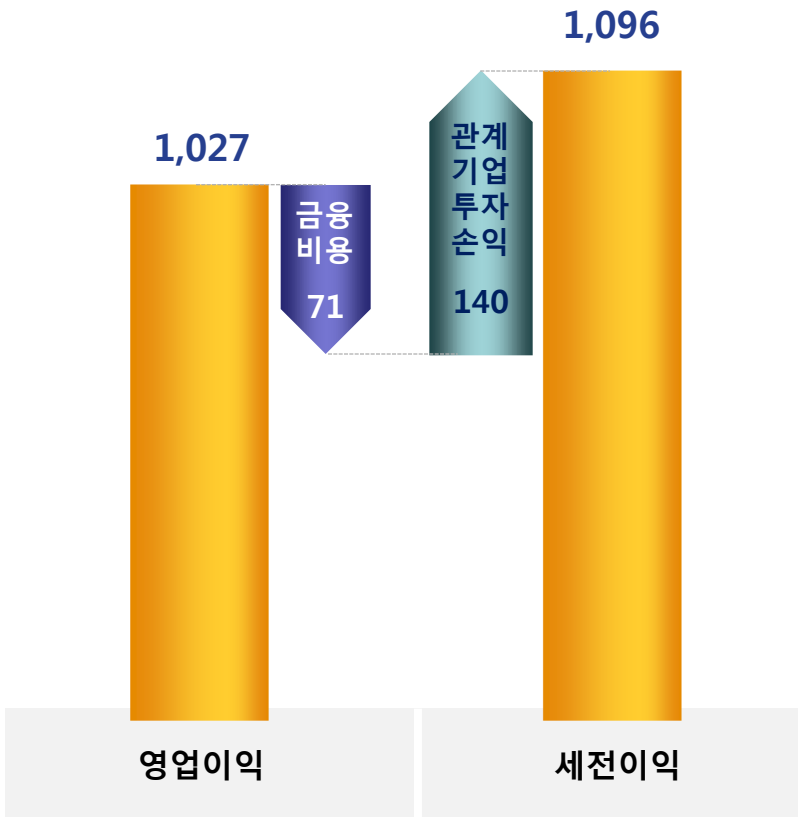
실적분석 및 전망

- 소비경기 호조 지속 및 신규브랜드의 외형 성장으로 전년비 매출 19%증가
 - 빈폴의 매출호조로 캐주얼 매출 13% 증가
 - 신사복 착장 트렌드 변화에 따른 비즈니스캐주얼 중심의 라인업 전환으로 남성복 매출 20% 증가
 - 신규브랜드의 안정화로 여성복 및 기타 복종의 성장세 지속 (전년비 매출 38% 증가)
- 본격적인 S/S 제품 판매시즌에 돌입에 따라 실적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

영업외손익

영업외손익분석

단위: 억원



관계기업투자손익

단위: 억원

	4Q 10	QoQ	1Q 11	YoY	1Q 10
에이스디지텍	-13	- 39	-52	- 64	12
삼성석유화학	161	+ 29	190	+ 126	64
기 타	1	+ 1	2	+ 2	-
합 계	149	- 9	140	+ 64	76

The background features a complex, abstract design with overlapping, semi-transparent geometric shapes in various shades of blue, green, and purple. On the right side, there is a detailed image of a blue printed circuit board (PCB) with intricate circuit patterns. Below the PCB, two circular components are visible: one with a red top and one with a green top. The overall aesthetic is modern and technological.

3 APPENDIX

분기별 경영실적 - IFRS 연결

단위: 억원			'10.1Q	'10.2Q	'10.3Q	'10.4Q	'10년 계	'11.1Q
매	출	액	11,696	13,274	12,908	13,252	51,130	13,996
	케	미	5,159	5,910	6,024	5,577	22,670	6,210
	전	자	3,211	3,681	3,713	3,522	14,127	3,837
	패	선	3,170	3,432	2,888	4,044	13,534	3,766
	기	타	156	251	283	109	799	183
영	업	이	909	1,028	900	462	3,299	1,027
	케	미	254	690	419	300	1,663	355
	전	자	385	225	396	33	1,039	364
	패	선	277	105	76	128	586	287
	기	타	-7	8	9	1	11	21
금	용	손	-71	-35	-146	2	-250	-71
관	계	기	76	82	96	149	403	140
세	전	이	914	1,075	850	612	3,451	1,096
순	이	익	790	923	721	329	2,763	916



※ 이 자료는 투자자의 편의를 위하여 외부감사인의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에 작성된 것으로 내용 중 일부는 외부감사인의 최종 검토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분기별 경영실적 - IFRS 별도

단위: 억원			'10.1Q	'10.2Q	'10.3Q	'10.4Q	'10년 계	'11.1Q
매	출	액	11,609	13,053	12,318	13,064	50,044	13,523
	케	미	5,192	5,924	5,678	5,511	22,305	5,983
	전	자	3,205	3,674	3,706	3,513	14,098	3,828
	패	선	3,075	3,218	2,700	3,849	12,842	3,530
	기	타	137	237	234	191	799	182
영	업	이	977	1,049	872	229	3,127	1,044
	케	미	303	691	393	278	1,665	383
	전	자	373	232	390	17	1,012	324
	패	선	304	109	102	117	632	334
	기	타	-3	17	-13	-183	-182	3
금	용	손	-70	-64	-112	-5	-251	-66
세	전	이	907	985	760	224	2,876	978
순	이	익	783	826	635	195	2,439	807

※ 이 자료는 투자자의 편의를 위하여 외부감사인의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에 작성된 것으로 내용 중 일부는 외부감사인의 최종 검토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.